

독일 우체국 파업의 경과와 주요 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2008년 3월 19일부터 서비스노조인 Verdi는 독일 우체국 사용자 측과 13만 명의 우체국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설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우체국 종사자들에 대한 ‘주당 38.5 근로시간 보장’과 ‘경영상 해고 보호의 연장’ 그리고 ‘7%의 임금인상’ 등이었다. 4월 30일 쾰른에서의 5차 협상에서 노조와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안에 합의함으로써, 약 4주간에 걸친 우체국 파업투쟁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우체국의 파업투쟁에 대한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 우체국노조 파업 경과

서비스노조와 우체국 사용자 간에 3월 19일과 28일 두 차례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자, 노조 측에서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파업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의 우체국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하에서는 4주간에 걸친 우체국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¹⁾

- 2008. 03. 19. 제1차 협상 과정에서 서비스노조인 Verdi와 독일 우체국 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보호와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쟁점 협상이 성과없이 끝남.
- 2008. 03. 28. 양측간 2차 협상도 성과없이 끝남.
- 2008. 03. 31. 서비스노조인 Verdi 측에서 우체국 근로자들의 파업을 선포.
- 2008. 04. 01.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오펜바흐, 브레멘, 하노버, 드레스덴, 에센, 쾰른, 본, 로스토크와 킬 지역 약 5,000여 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의 파업 실시로 우편서비스 업무 중단. 이로 인해 약 600만 통의 우편물과 15만 개의 소포 배송 서비스가 중지됨.
- 2008. 04. 02. 독일 바이에른 지역 2,300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 180만 통의 우편물 및 400만 통의 광고 전단과 14만 개의 소포 배송 서비스가 중단됨.
- 2008. 04. 03. 바덴-뷔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및 자란트주 지역 2,300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8만 건 이상의 우편 배송 서비스가 중지됨.
- 2008. 04. 04. 헤센, 작센, 작센-안할트와 튀링겐주 지역 2,500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약 300만 통의 우편물과 5만 개의 소포 배송 서비스가 정지됨.
- 2008. 04. 05. 니더작센, 브레멘, 함부르크, 슈레스비히-홀스타인,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주에서는 3,700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약 360만 통의 우편물과 15만 개의 소포 배송이 정지됨.
- 2008. 04. 0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4,600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이 한시적으로 파업에 돌입함. 이로 인해 250만 통의 우편물과 6만 개의 소포 배송이 정지됨.
- 2008. 04. 09. 3차 협상 테이블에서 서비스노조인 Verdi는 사용자 측에게 협상이 지연될 수 있음을 경고함.
- 2008. 04. 15. 독일 전역에 설치된 49개소 우체국 지점에서 7,000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함. 이로 인해 우편물 및 소포 배송에 상당한 차질이 생김.
- 2008. 04. 17.-18. 양측간 협상이 다시 실패함.
- 2008. 04. 21. 베를린, 드레스덴, 두이스부르크, 프라이징, 함부르크, 하노버, 마인츠, 슈투트가르트와 비스바덴 지역의 우체국중앙센터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 이로 인해 약 300만 통의 우편물 배송 서비스가 중지됨.
- 2008. 04. 22. 독일 전역 40개 도시에 설치된 우편물분배소에서 약 450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 이로 인해 약 100만 건의 우편물 분류업무가 중지됨.

1) *Bewegen, 38.5-Stunden-Woche für alle!* 2008. 05., pp.5-7.; *Bewegen, Postbeschäftigte kämpfen für Sicherheit und Perspektive*, 2008. 04., pp. 4-5.

- 2008. 04. 23. 베를린, 쾰른, 에센, 함부르크, 프라이징, 뉘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와 니더아우라 지역 우편 보급소의 약 400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을 실시함.
- 2008. 04. 24. 독일 전역에 설치된 모든 49개 우체국지점에서 5,000명의 우체국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 인해 600만 통의 우편물과 20만 개의 소포 배송 서비스 업무가 정지됨.
- 2008. 04. 25.-29. 무기명 투표 실시: 93.1%의 우체국서비스 노조원들이 무기한의 파업투쟁 여부에 찬성함.
- 2008. 04. 30. 양측 협상당사자들이 단체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함.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할 것, 7%의 임금인상안 및 2011년 6월 30일까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예외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에 합의함.
- 2008. 5. 13-15. 노조측에서 협상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 실시.

■ 독일 우체국노조 파업의 쟁점 및 합의 내용

4월 25일부터 29일간 실시된 우체국노조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우체국 사용자 측에게 13만명에 이르는 우체국 근로자들에 대한 주당 근로시간 연장계획을 철회하고, 5만 5,000명의 우체국 공무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유지하는 요구안에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체국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보호 조치 및 근로시간과 임금인상과 관련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5월 13일과 15일에 걸쳐 실시된 서비스노조원들의 무기명 투표는 이러한 합의안을 수용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서비스노조가 사용자 측과 협상했던 핵심 쟁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영상 해고 예외조항

(Ausschluss betriebsbedingter Beendigungskündigungen)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예외를 통한 근로자보호 조치가 2011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게 된다. 경영상 해고의 예외 조항은 199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의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단체협약상의 해고보호 규정은 3개월마다 갱신되었는데, 지난번 해고보호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노조 측

의 요구대로 경영상 해고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39개월 더 연장됨으로써, 앞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단체협약상의 경영상 해고 예외를 통한 근로자 보호규정이 효력을 갖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Wochenarbeitszeit)

독일 우체국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및 공무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서비스노조 측에서 요구한 대로 38.5시간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당초에 사용자 측의 요구사항이었던 우체국 근로자들에 대한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연장하고, 우체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초 41시간으로 연장하고 차후에 40시간으로 조정하려 했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노조가 2월에 파기를 통고했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규정(Arbeitszeitbestimmungen)’은 주당 38.5의 주당 근로시간 유지를 포함하여 2008년 4월 1일자로 소급하여 시행된다.

노조 측의 주장에 의하면, 사용자 측의 주당 근로시간 연장계획을 철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써,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제근로자(Teilzeitbeschäftigte)들의 임금소득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측의 계획대로 시간제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30분 정도 연장하게 된다면, 임금소득이 약 1.3%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이 41시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로자들에게 약 6.5%의 임금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독일 우체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약 51% 정도가 시간제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이번 양자간 협상에서 시간제근로자들에게 임금 인하를 초래할 수 있는 일련 조치들은 상당부분 제거되었다. 이러한 주당 근로시간 합의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규정’은 앞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서비스노조와 사용자측이 합의한 또 다른 사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주당 근로시간도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38.5시간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사항에 따라서, 우체국 측은 독일연방재정부(Bundesfinanzministerium)에 지난 2008년 3월 31일까지 유효했었던 우체국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규정한 ‘우체국근로시간규정(Post-Arbeitszeitverordnung)’이 계속적으로 다시 효력을 갖도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임금인상(Entgeltterhöhung)

노사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13만 명에 달하는 우체국 근로자, 공무원, 직업연수생 및 직업아카데미 학생들의 임금은 2008년 11월 1일까지 4% 인상되게 되며, 2009년 12월까지 재차 3%가 인상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7%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2008년 11월 1일까지 지급될 4% 임금인상분은 바로 1년 전인 2007년 11월 1일에 2.5% 임금인상 이후에 재차 인상되는 것으로서, 매년 우체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임을 보장받았던 지난번 협상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임금인상을 포함한 협약 내용은 향후 26개월 동안 효력을 갖게 되어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우체국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추가수당(Postzulage für Beamte)

양측간의 합의 내용에 의하면,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난 2007년까지 월 단위로 지급되었던 특별추가수당이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당시와 같은 액수로 계속적으로 지급되게 된다. 공무원에 대한 특별추가수당은 크리스마스 상여금(Weihnachtsgeld) 축소와 휴가수당(Urlaubsgeld)의 폐지로 인해 감소된 공무원들의 임금상실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특별추가수당의 지속적인 지급결정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성과급 지급(Leistungsentgelt)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특별추가수당이 지급되는 액수만큼이 축소 조정된 '우체국성과급규정(Postleistungsentgeltverordnung)'이 적용되게 된다.

휴식시간과 중간휴식(Erholungszeiten und Kurzpausen)

휴식시간과 관련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매 근로시간당 2.25분-이전까지는 3.5분-의 휴식시간(Erholungszeiten)을 보장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였다. 이 2.25분의 휴식시간에는 2.03분-이전까지는 3.14분-의 중간 휴식(Kurzpausen)이 포함된다. 비록 협상 결과로 인해 매 근로시간당 중간휴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 약 1분 정도 감소하게 되었지만, 애초에 사용자 측에서 중간휴식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던 계획을 무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서

비스노조가 요구한 대로 중간휴식의 완전 삭제가 아닌 2/3 수준으로 조정되어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되게 된다.²⁾ 예를 들어, 향후에 우체국센터에서 3시간의 근무교대당 9분 대신 6분의 유급 중간휴식이 보장되는 것이다.

초과근무(Überzeitarbeit)

그동안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된 매분의 초과근로를 30분으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폐지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매분의 초과근로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2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의 경우 30분으로 반올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22분의 초과근무분에 해당하는 25%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게 된다. 이러한 초과근무시간 규정은 지금까지 우편배달직무 분야에만 적용되어 왔다. 우체국 내 다른 직무 분야에 대한 초과근무시간은 단체협약 Nr. 37b의 '근로시간규정(Arbeitszeitbestimmungen)'에 따라 적용된다.

일회성 보너스 지급(Einmalzahlung)

노사간의 합의안에 따라, 우체국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200유로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보너스는 2008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분할하여 각각 100유로씩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게 된다. 시간제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너스가 지급되게 되며, 우체국에서 실습중인 직업연수생과 직업아카데미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일회성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는다.

2) 사용자 측에서도 중간휴식에 관한 합의 내용이 우체국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중간휴식을 1/3 정도 축소시킴으로써 주당 50분 정도의 근로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Einigung im Tarifstreit bei der Post, 2008. 04. 08.

■ 맺음말 : 단체협약 결과에 대한 노조 측의 평가

서비스노조 측은 이번 파업투쟁의 성과에 대해 노조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우체국의 성공적인 경영성과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경영상 해고 예외조항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독일 우체국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사용자 측의 주당 근로시간 연장계획을 철회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입게 될 임금상실을 방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비스노조 의장인 안드레아 코크시스(Andrea Kocsis)는 “93%가 넘는 우체국 노조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우리는 수용할 만한 협상결과를 유도해냈다”고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³⁾

참고문헌

- *Bewegen* (서비스노조 소식지), 38.5-Stunden-Woche für alle!, 2008. 05., pp.5-7, http://psl.verdi.de/publikationen/mitgliederzeitschrift_bewegen/data/2008_05_bewegen.pdf.
- *Bewegen* (서비스노조 소식지), Postbeschäftigte kämpfen für Sicherheit und Perspektive, 2008. 04., pp. 4-5, http://psl.verdi.de/publikationen/mitgliederzeitschrift_bewegen/data/2008_04_bewegen.pdf.
- *Verdi Postdienste Nachrichten*, Informationen zum Tarifabschluss bei der Deutschen Post AG, http://psl.verdi.de/postdienste/nachrichten/38_5_stunden_fuer_alle/data/sonderdruck.pdf.
- *Verdi Postdienste Nachrichten*, Arbeitszeit der Postbeamten, 2008. 02. 01., http://psl.verdi.de/postdienste/nachrichten/arbeitszeit_der_postbeamten.
- *Verdi Postdienste Nachrichten*, Ausschluss von betriebsbedingten Beendigungskündigungen, 2008. 02. 01., http://psl.verdi.de/postdienste/nachrichten/ausschluss_von_betriebsbedingten_beendigungskueendigungen_bei_der_deutschen_post_ag.

3)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Einigung im Tarifstreit bei der Post, 2008. 04. 08.

- Deutsche Post AG News, Tarifeinigung: Moderater Abschluss – Streikgefahr gebannt, 2008. 04. 30., http://www.dpwn.de/dpwn?tab=1&skin=hi&check=yes&lang=de_DE&xmlFile=2009851.
- Deutsche Post AG News, Tarifverhandlung(2008), Konstruktive Gespräche zwischen Verdi und der Deutschen Post, 2008. 04. 09., http://www.dpwn.de/dpwn?tab=1&skin=hi&check=yes&lang=de_DE&xmlFile=2009791.
- Deutsche Post AG News, Tarifverhandlung(2008), Konstruktives Angebot der Deutschen Post – Verdi-Streikdrohungen sind grundlos, 2008. 03. 29., http://www.dpwn.de/dpwn?tab=1&skin=hi&check=yes&lang=de_DE&xmlFile=2009762.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Einigung im Tarifstreit bei der Post, 2008. 04. 30., <http://www.faz.net/s/RubD16E1F55D21144C4AE3F9DDF52B6E1D9/Doc~E7E4031429FF94AA1846A2D293F5D44AF~ATpl~Ecommon~Scontent.html>.